

가계부채 1년새 광주 7.23%·전남 6.97% 급증

혁신도시 등 지방 주택시장 활기 대출 증가 비수도권 증가율 8.8%로 수도권의 6배 넘어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의 가계부채가 최근 1년간 급속히 늘었다.

2일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계대출 잔액은 16조380억원과 14조1800억원으로 2012년 말보다 각각 7.23%와 6.97% 증가했다.

또 전국 가계대출 잔액은 687조 1864억원으로 2012년 말(659조8583

억원)보다 4.1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작년 말 기준으로 421조7199억원에 달해 1.4%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243조9656억원에서 265조4665억원으로 8.81% 증가해 증가율면에서 수도권의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경남으로 증가율이 11.56%(33조5794억원→37조4607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경북(11.38%),

제주(10.68%), 대구(9.91%), 대전(8.71%), 울산(8.26%), 전북(7.86%), 부산(7.7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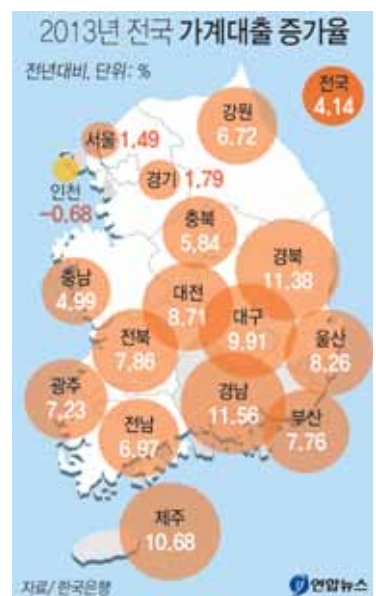
반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적은 곳은 인천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율이 마이너스(-0.68%)를 기록했다. 인천 다음으로는 서울(1.49%), 경기(1.79%), 충남(4.99%), 충북(5.84%), 강원(6.72%) 순으로 증가율이 작았으며 각각 7.23%와 6.97%를 기록한 광주와 전남은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지난해 비수도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수도권보다 훨씬 큰 것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전문가들은 “지난해 지방의 주택시장이 수도권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비수도권에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수도권 증가세가 수도권을 크게 앞질렀다는 점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지만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기업도시 유치, 세종시 등으로 수요가 늘고 공급이 뒤따라 시장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기아자동차 경기도 광명시 생산교육센터에서 열린 '안전환경경영 선포식'에서 이승철 화성공장장(전무), 김중용 광주공장장(부사장), 이상웅 사장, 박광식 소하리공장장(전무·앞쪽 왼쪽부터)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안전환경경영 선포식

기아자동차가 안전중심 경영철학을 현장에 확산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28일 경기도 광명시 생산교육센터에서 '안전환경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삼웅 기아차 사장을 비롯, 김중용 부사장(광주공장), 박광식 전무(소하리), 이승철 전무(화성) 등 6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기아차는 “글로벌 생산의 허브역할을 담당해온 국내 3개 공장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재구축하고, 건강한 근로자의 삶까지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전사 안전환경개선 총괄하는 안전환경기획실, 안전보건기획팀, 환경방재기획팀 등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

지난해 광주·전남 경지면적 0.29% 줄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경지면적은 31만8849ha로 전년대비 0.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대비 평균 1.1% 감소폭보다는 소폭이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농림축산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경지는 1140ha 증가하고 2065ha 감소해 전년대비 925ha 줄어든 31만8849ha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면 논 면적은 19만 8851ha로 전년대비(19만7711ha) 0.

6%(1140ha) 늘었다. 밭 면적은 11만9998ha로 전년대비(12만2063ha) 1.7%(2065ha) 감소했다.

시도별 경지 면적을 보면 전남이 30만8000ha(18.0%), 경북이 27만 9000ha(16.3%), 충남이 22만4000ha(13.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시·군중 해남군의 경지면적이 3만5369ha로 가장 컸다. 이어 제주시(3만1585ha), 서귀포시(3만1271ha), 김제시(2만8501ha), 서산시(2만7285ha) 순이었으며 광

주는 1만6288ha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늘리는 논·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하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된 세종시 경지면적은 1만316ha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아리랑 2호와 3호 위성이 보내온 영상을 관측해 경지면적을 계산했다.



삼성전자는 젊고 새로운 감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3 네오'(Galaxy Note3 Neo)를 통신 3사를 통해 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최신 기능을 즐기길 원하는 젊은 층을 겨냥한 제품으로 '갤럭시 노트 3'의 혁신 기능은 그대로 지원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 제공)

1년만에 찬밥 신세된 재형저축

금리 낮고 소득공제 혜택없어
활동계좌 7개월 연속 감소세

정부가 서민층 재테크 수단으로 17년만에 부활시킨 신(新) 재형저축이 출시 1년 만에 찬밥 신세가 됐다. 금융권에서는 장기간 상품임에도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크게 높지 않은데다 소득공제 혜택도 없어 고객들의 관심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금융권의 재형저축(펀드포함) 활동계좌는 175만2297좌로 지난해 12월 말 177만3428좌보다 2만 1131좌(1.2%) 줄었다. 새로 만들어진 계좌보다 해지되는 계좌가 더 많은 셈이다.

재형저축 계좌는 지난해 6월 말 182만8540좌로 고점을 찍은 뒤 7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해에도 이런 추

세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간소세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7~8월 1000좌 안팎 줄었던 재형저축 계좌는 9월 들어 1만좌 안팎이 감소하던데 올해 1월에는 처음으로 2만좌 이상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재형저축의 인기가 시들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금리 수준을 꼽는다. 최고 30%대의 높은 금리로 이른바 '결맞게'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던 1980년대와 달리, 7년을 묶어두어야 하는 단점을 상쇄할 만큼 금리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별로 최고 연 4.2%~4.5% 금리를 적용해주는 3년 고정금리 상품은 3년이 지나면 금리가 변동된다. 금융당국이 금리 변동 위험성을 줄이고자 출시를 독려했던 7년 고정금리 상품은 금리가 연 3.2%~3.5%로 일반 적금과 비슷해 판매 실적이 더 부진하다.

송기진 전 광주은행장
하나금융 사외이사 후보 추천

송기진(사진) 전 광주은행장이 하나금융그룹 신임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날 28일 경영발전보상위원회(경발위)를 열어 하나은행장과 외환은행장 후보로 김중준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 후보를 각각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차기 행장 내정과 함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사외이사 8명 가운데 4명을 교체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송기진(62) 전 광주은행장, 정창영(60) 전 코레일 사장, 김인배(52) 이화여대 교수, 윤종남(66) 법률사무소 청평 대표변호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3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목에서 1개만 해당된 경우>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현장학습과 함께하는 「실용도종약초」 수강생 모집

■ 교육일시: 2014년 3월 4일(화) ~ (15주) / 매주 화요일 저녁 7:00 ~

■ 강사: 김성희 010-9604-5377

■ 교육내용

- 주변에 자생하는 약초에 대한 생태 및 분류의 이해
- 약초의 성질과 유효성분, 지표성분과의 상관 관계
- 약초 발효액, 발효차, 식초만들기
- 약초의 재배, 재취와 가공 방법
- 현대인의 건강과 healing 도움이 되는 약초

광신대학교 생활한방교육원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층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 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뛰어난 열전도성, 층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강화마루, 온돌마루, 오노들, 테코타일(역사각형), 테코타일(정사각형)

전국 시·군·구 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용건설 InstaFloor